

도시와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여가수준 비교연구

김미숙, 신어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elfare and Leisure of Children and Youth in Urban and Rural Areas

MeeSook Kim, Oejin Shi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Abstract =

Objectives: This study compared the welfare level and leisure activities of children and the youth in urban areas with rural areas, and examined factors affecting their life satisfaction.

Methods: The fourth wave of the Youth Panel data colle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has been utilized. A total of 3,145 sample was drawn, and the average age of the sample was about 17 years old (a sophomore in high-school).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has been employed.

Results: In almost all welfare related variables including life satisfaction, leisure satisfaction, parent attachment,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peers, the rural children and youth showed lower scores than their urban counterparts. The only factor whose score was higher to the rural children and youth was community factor including community attachment and guidance. In terms of leisure (satisfaction) level which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f predicting the variance of life satisfaction, the rural children and youth revealed unfavorable condition, as their accessibility to the facilities was low and there were less facilities in rural areas in the first place.

Conclusions: As a way to improve the welfare and cultural level of rural children and youth, this study proposed to make investment to the rural areas by providing them with welfare and leisure infra structure and various welfare and leisure programs. To improve the outdoor leisure activities of the urban children and youth, setting up a sisterhood between urban and rural schools has been suggested.

Key Words: Welfare, Leisure, Rural areas, Life satisfaction, Leisure activities

* 접수일(2009년 6월 5일), 수정일(2009년 7월 24일), 게재확정일(2009년 8월 10일)
* 교신저자 : 신어진(Oejin Shin),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전화 : 02-380-8153, 팩스 : 02-384-3084, E-mail : oejinshin@kihasa.re.kr

서론

최근 우리나라 농산어촌지역은 아동 및 청·장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1].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에 비해 2008년 농산어촌의 전체가구 수가 1만9000가구 줄어들었고, 농산어촌의 인구는 8만7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산어촌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젊은 연령층의 전입이 없으면 앞으로 농산어촌 사회가 해체될 것이라는 예견이 제시되어[2], 농산어촌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산어촌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3,4].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농산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야기된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의 감소현상은 시급히 대안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농산어촌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은 청장년층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간관계 경험과 건강한 집단 활동의 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서 건전한 자아의식과 시민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기회 부족은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농산어촌지역의 학교나 아동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막고, 결국 교육이나 문화적 기회 부족까지 연결되게 된다[5]. 즉, 농산어촌지역에 남아있는 아동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내 또래 및 모델의 부족으로 건전한 성장을 저해 받고, 이러한 농산어촌지역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농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농산어촌의 고령화율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며, 농산어촌 부양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농업 중심의 농산어촌사회가 와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2007년 외국 여자와 혼인한 비율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7.3%, 농산어촌이 13.5%로 나타나[6], 농산어촌지역의 외국 여성과의 결혼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 지역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 이민자 가족의 자녀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복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산어촌지역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이 건강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산어촌지역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하여 이규천과 최경환[7]의 연구에서는 농산어촌지역 젊은 인력의 부족은 미래 식량 안보의 위험, 안전한 식품공급체계의 파괴, 자연환경의 파괴 등 그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경준 등[5]의 연구에서도 농산어촌지역의 아동청소년 문제가 도시지역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간적 특성, 지지체계 성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농산어촌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농산어촌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실태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Kwon[8]의 연구에서는 농산어촌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청소년 복지의 정책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지방아동청소년정책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노력 제고, 아동청소년수련시설의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문화 공간 발굴노력 등의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규천과 최경환[7]의 연구에서는 사례지역 분석, 면접조사, 문헌검토를 통하여 농산어촌지역의 영유아 보육 실태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산어촌 영유아 보육의 문제점으로는 거버넌스 문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운영문제, 정책수혜로부터 배제되는 영유아 존재 문제, 지원금 부당 수령자 존재 문제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준 등[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한 내용 중 농산어촌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농산어촌 아동청소년 문제는 농산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공동화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과 깊게 관련이 되어 있으며, 선진국에서 자국의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적극적인 정책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태완 등[9]의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농산어촌 보건복지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산어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사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보육 및 교육비용을 비교한 결과 농산어촌 경우가 도시에 비해 한 달 평균 사교육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산어촌지역의 이용 복지서비스는 농산어촌지역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복지 서비스 이용실태가 도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도시 농산어촌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Menanteau-Horta and Yigzaw[10]는 Minnesota에 속한 87개 지역의 전체적인 복지수준과 아동 복지에 관한 지표를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 복지에 관한 지표는 U.S. Bureau of the Census와 Children's Report Card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대도시(metropolitan), 도시(urban), 농산어촌(rural)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대도시와 도시지역보다 농산어촌지역의 전반적인 복지와 아동 복지 수준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Guo and Wu[11]는 중국의 경제개혁기간인 1981년부터 2006년까지의 학교확대와 교육계층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육 성취에 대한 도시와 농산어촌지역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등교육의 경우 도시의 아동들이 농산어촌지역의 아동들보다 더 접근 가능성이 높고, 고등교육 기회를 얻기 위한 접근이 어려운 농산어촌지역 아동들은 계층 이동의 기회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중국 교육 정책이 도시아동을 위한 혜택 뿐 아니라, 농산어촌 아동의 계층이동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존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여가수준 비교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도시와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의 복지 및 문화수준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 복지와 문화의 지방격차 문제 해결과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 및 문화생활

개선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7년도에 실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패널데이터 중2패널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중2패널 대상자들은 4차년도 조사시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었으며, 전체 3,449명의 거주단위에 따라 구분하여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청소년의 복지 및 여가생활 수준 차이를 분석한다.

2. 조사내용 및 조사변수

본 연구는 크게 복지수준과 여가수준의 차이를 비교한다. 우선 도시와 농산어촌의 복지수준 차이는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 및 또래요인, 지역사회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개인요인에는 자존감, 스트레스 정도, 여가 만족도가 포함되고, 가족요인에는 가족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 부모에 대해 느끼는 애정인 부모애착이 포함된다. 학교 및 또래요인에는 공부압력, 교사관계, 급우관계를 포함하였다. 지역사회 요인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지도 및 단속을 포함하였다.

여가수준은 여가유형, 여가상대, 여가장소, 여가불만족이유, 수련활동, 자원봉사유형, 동아리 활동유형 등의 도시와 농산어촌의 차이를 분석한다.

3. 통계분석

복지수준과 여가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통해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도시와 농촌의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아동청소년 삶의 질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변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s

Factor and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No. of Items	
Dependent	Life satisfaction	Overall satisfaction with life	1	
Independent	Individual factor	Self-esteem	Self evaluation about oneself	6
		Stress	Degree of stress	16
		Leisure satisfaction	Overall satisfaction with leisure	1
	Family factor	Home economy satisfaction	Overall satisfaction with family economic situation	1
		Parent attachment	Attachment to parents	2
	School & Peer factor	Study pressure	Pressure from study	3
		Teacher relation	Relationship with teachers	1
		Peer relation	Relationship with classmates	1
Community factor	Community attachment	Attachment to community	2	
	Community protection	Resident protection by community	2	

* Five point scale have been used for each item.

결 과

1.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도시아동청소년은 2,750명,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은 395명으로 총 3,145명으로 집계되었다(Table 2). 도시 아동청소년의 경우 남녀의 성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50.5%, 49.5%), 농촌의 경우는 남자 아동청소년(47.8%)에 비해 여자 아동청소년(52.2%)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를 살펴본 결과 양친부모 비율은 도시(92.6%)가 농촌(88.5%)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8.6%)과 재혼가족(1.3%), 부모사망 비율(1.6%)이 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분석한 결과 도시의 경우 3,319,151원으로 농산어촌 월평균소득 2,557,902원에 비해 약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Urban	Rural
		N (%)	N (%)
Total	3,145 (100.0)	2,750 (87.4) (100.0)	395 (12.6) (100.0)
Sex	Male	1390 (50.5)	189 (47.8)
	Female	1360 (49.5)	206 (52.2)
Family pattern	Both parents	2487 (92.6)	340 (88.5)
	Single parent	176 (6.6)	33 (8.6)
	Remarried family	19 (0.7)	5 (1.3)
	Parents deceased	3 (0.1)	6 (1.6)
Mean Family income (won)		Mean 3,319,151	Mean 2,557,902

2. 복지수준 도농비교

개인의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삶의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4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의 삶의 만족도(3.42)가 농산어촌(3.30)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다음에는 도농간 요인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개인요인에 속한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여가만족도의 도농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은 6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비교가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5점 척도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모든 조사 항목들은 5점 척도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34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이 5점 척도 기준에서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도시지역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평균이 농산어촌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16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전체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는 중간을 약간 밑도는 2.83 수준이었다. 도시지역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2.85)가 농산어촌(2.74)에 비해 약간 높으며 이러한 결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만족도는 도시지역 아동청소년의 여가만족도(3.24)가 농산어촌(3.1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으로는 경제 만족도, 부모애착을 살펴 보았다. 경제적 만족도는 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평균은 3.96점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 아동청소년의 경제 만족도(3.98)가 농산어촌(3.83)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문항으로 구성된 부모애착은 5점 척도로 환산된 전체 평균은 3.46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아동청소년의 부모애착(3.48)이 농산어촌(3.31)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ean comparison of welfare level by region

Factors and variables	Total		Urban		Rural		t	p	
	Mean	SD	Mean	SD	Mean	SD			
N	3,121		2,727		394		-	-	
Satisfaction with life	3.41	0.79	3.42	0.78	3.30	0.79	2.900	.004	
Individual factor	Self-esteem	3.34	3.67	3.34	3.67	3.29	3.70	1.513	.130
	Stress	2.83	10.42	2.85	10.27	2.74	11.32	2.901	.002
	Satisfaction with leisure	3.23	0.84	3.24	0.84	3.15	0.80	2.051	.048
Family factor	Satisfaction with home economy	3.96	1.03	3.98	1.02	3.83	1.04	2.578	.010
	Parent attachment	3.46	4.51	3.48	4.53	3.31	4.25	4.547	.000
School & peer factor	Pressure from study	3.30	1.89	3.31	1.89	3.19	1.86	3.455	.001
	Relation with teachers	4.27	0.84	4.30	0.83	4.09	0.86	4.565	.000
	Relation with classmates	4.44	0.74	4.47	0.73	4.27	0.83	4.451	.000
Community factor	Community attachment	2.53	1.86	2.49	1.85	2.79	1.88	-5.886	.000
	Community protection	3.16	1.99	3.14	2.00	3.31	1.91	-3.232	.001

***p<.001, **p<.01, *p<.05

학교 및 또래요인으로는 공부압력, 교사관계, 급우관계를 살펴보았다. 공부압력은 3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측정결과 도시지역 아동청소년의 공부압력(3.31)이 농산어촌(3.19)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는 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시지역 아동청소년의 교사와의 관계(4.30)가 농산어촌(4.09)에 비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우관계도 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시지역 아동청소년의 급우와의 관계(4.47)가 농산어촌(4.27)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요인으로는 지역사회 애착(지역사회에 대해 느끼는 애정)과 지역사회 감독(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지도 및 단속)을 살펴보았다. 지역사회 애착은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평균이 2.53으로 낮았다. 농산어촌지역의 지역사회 애착(2.79)이 도시(2.49)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감독은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3.16으로 파악되었고, 농산어촌지역의 지역사회 감독(3.31)이 도시(3.14)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와 관련해서는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의 애착과 지역사회와의 밀착 의식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도시 아동청소년의 복지수준이 농산어촌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3. 여가수준 도농비교

여가 수준 비교를 위하여 도농간 여가활동 유형, 같이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 여가장소 등을 살펴 보았다. 먼저 여가활동 유형을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도시의 평일 여가활동은 텔레비전 시청, 음악듣기, 인터넷 서핑/검색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산어촌의 경우는 텔레비전 시청, 음악듣기, 온라인게임 순으로 나타났다. 휴일여가활동의 경우 도시는 텔레비전 시청, 온라인게임, 인터넷 서핑/검색으로 파악되었고, 농산어촌은 텔레비전 시청, 음악듣기, 온라인게임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의 대다수가 메스미디어를 통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이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을 살펴본 결과, 도시의 경우 평일 여가를 같이 보내는 사람으로 혼자(42.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성친구(40.8%), 가족(12.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산어촌지역의 경우에는 평일 여가를 같이 보내는 사람으로 동성친구(47.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혼자(33.3%), 이성친구(3.8%) 순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여가를 혼자 보내는 비율이 훨씬 낮았고, 주로 동성친구와 보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일의 경우 도시는 동성친구(41.6%), 가족(25.6%), 혼자(20.6%) 순으로 분석되었고, 농산어촌도 이와 유사하게 동성친구(35.4%), 가족(30.5%), 혼자(24.4%) 순으로 파악되었다(Table 5).

Table 4. Leisure activity type comparison by region

Rank	Urban		Rural		
		N (%)		N (%)	
Weekday	1	Watching TV	1,490 (20.7)	Watching TV	199 (19.0)
	2	Music listening	998 (13.9)	Music listening	155 (14.8)
	3	Internet surfing	593 (8.2)	On-line game	85 (8.1)
Weekend	1	Watching TV	1366 (18.3)	Watching TV	216 (20.0)
	2	On-line game	608 (8.1)	Music listening	102 (9.4)
	3	Internet surfing	605 (8.1)	On-line game	93 (8.6)

note: multiple responses

Table 5. Leisure activity partner comparison by region

	Weekday		Weekend	
	Urban	Rural	Urban	Rural
	N (%)	N (%)	N (%)	N (%)
No partner	1,147 (42.1)	131 (33.3)	558 (20.6)	95 (24.4)
Opposite sex friend	88 (3.2)	15 (3.8)	282 (10.4)	28 (7.2)
Same sex friend	1,112 (40.8)	188 (47.8)	1,128 (41.6)	138 (35.4)
Peers	20 (0.7)	10 (2.5)	32 (1.2)	8 (2.05)
Family	346 (12.7)	49 (12.5)	693 (25.6)	119 (30.5)
Other	11 (0.4)	0 (0.0)	19 (0.7)	2 (0.5)
Total	2,724 (100.0)	393 (100.0)	2,712 (100.0)	390 (100.0)

여가활동 장소를 살펴본 결과, 평일 도시지역의 경우 자기집(6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20.6%), 집근처 또는 동네주변(7.4%) 순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지역의 여가활동 장소도 자기집(50.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33.3%), 시내(8.1%) 순으로 나타나 도시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농산어촌의 경우가 도시에 비해 자기집에 머무는 비율이 약간 낮게 나타난 반면 학교에서 보내는 비율은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able 6).

휴일에는 도시의 경우 자기집(50.7%), 시내(23.3%), 집근처 또는 동네주변(15.6%) 순으로 나타났고, 농산어촌의 경우는 자기집(59.4%), 시내(17.9%), 친구집(6.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산어촌의 경우 휴일에는 학교가 문을 닫기 때문에 자기집에서 보내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의 경우 휴일에는 집 밖으로 나가 도심이나 집 근처 및 동네 근처에서 여가를 많이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가 농산어촌보다는 집 밖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역으로 농산어촌에는 여가를 위한 인프라의 취약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여가활동에 불만족을 표시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만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분석하였다(Table 7). 전체적으로 불만족 이유로 지적된 것은 '진학 및 취업준비로 인한 시간부족'(3.22), '여가시설과 장소부족'(3.25), '여가 프로그램 부족'(3.31)을 높게 지적하였다. 도시의 경우는 농산어촌에 비해 부모의 통제와 간섭이 심하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농산어촌의 경우는 도시에 비해 '여가시설과 장소 부족', '여가시설과 장소의 접근이 불편함', '여가프로그램의 부족'을 훨씬 더 많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농산어촌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을 저해하는 요소가 여가시설 및 장소 부족과 여가프로그램의 부족임이 나타났으며, 도시의 경우는 공부로 인해 부족한 여가시간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 도모를 위해서는 도농간에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Leisure place comparison by region

Place	Weekday		Weekend	
	Urban	Rural	Urban	Rural
	N (%)	N (%)	N (%)	N (%)
Home	1,731 (65.0)	194 (50.8)	1,324 (50.7)	225 (59.4)
Friend's house	52 (2.0)	6 (1.6)	86 (3.3)	26 (6.9)
Community	198 (7.4)	19 (5.0)	408 (15.6)	25 (6.6)
School	548 (20.6)	127 (33.3)	26 (0.1)	19 (5.0)
Downtown	104 (3.9)	31 (8.1)	608 (23.3)	68 (17.9)
Park, outdoors	24 (0.9)	5 (1.3)	127 (4.9)	10 (2.6)
Other	6 (0.2)	0 (0.0)	33 (1.3)	6 (1.6)
Total	2,663 (100.0)	382 (100.0)	2,612 (100.0)	379 (100.0)

Table 7. Leisure dissatisfaction reason comparison by region

Dissatisfaction reasons	N	Total		Urban		Rural		t	p
		Mean	SD	Mean	SD	Mean	SD		
Lack of time due to study	518	3.22	1.34	3.26	1.34	2.97	1.36	1.640	0.10
Parental over-control	516	2.55	1.22	2.60	1.23	2.22	1.13	2.368	0.02
High Expenses	516	3.08	1.21	3.08	1.22	3.07	1.15	0.049	0.96
Lack of friends	516	2.16	1.06	2.16	1.06	2.10	1.08	0.433	0.67
Lack of facilities	516	3.25	1.25	3.18	1.26	3.72	1.08	-3.709	0.00
Little accessibility	516	2.92	1.26	2.83	1.24	3.49	1.22	-4.075	0.00
Lack of leisure programs	516	3.31	1.24	3.27	1.23	3.61	1.22	-2.151	0.03
Don't know how to spend time	516	2.71	1.25	2.72	1.26	2.63	1.19	0.564	0.57

Table 8. Training activity comparison by region

Activities	Urban		Rural	
	N	(%)	N	(%)
Physical activities	411	(15.1)	63	(16.0)
Sentiment promotion	224	(8.2)	28	(7.1)
Outdoor activities	214	(7.8)	61	(15.5)
Etiquette learning	167	(6.1)	28	(7.1)
Volunteer activities	526	(19.3)	76	(19.3)
Traditional culture explore	96	(3.5)	14	(3.6)

* Only those who participate in activities are shown.

그 다음으로는 여가활동의 유형을 수련활동, 자원봉사활동, 동아리활동으로 구분하여 도농간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수련활동 참여 활동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사회봉사활동(19.3%)이고, 그 다음으로는 체력증진활동(15.1%), 정서함양활동(8.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8).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은 사회봉사활동(19.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체력증진활동(16.0%), 자연체험활동(15.5%)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산어촌을 비교할 때, 자연체험활동의 경우는 도농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의 경우는 농산어촌의 자연체험활동의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 관련 다양한 유형을 개발하고 각 유형별 참여제고를 위한 후속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살펴보았다.

도시지역 아동청소년의 경우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자원봉사활동은 일손돕기(24.5%)이며, 그 다음으로는 위문활동(7.3%), 캠페인활동(6.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9). 농산어촌지역 아동청소년의 경우 일손돕기(26.6%)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캠페인활동(10.2%), 지역사회개발활동(8.1%) 순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캠페인 활동, 지역사회개발 활동, 자선구호활동 등을 더 많이 하는 반면 도시의 경우는 위문활동을 약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활동 참여 활동영역을 살펴본 결과 도시지역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교내 공식 동아리(37.9%)이며, 그 다음으로는 비공식 소규모 동아리(8.5%), 사이버 동아리(8.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0). 농산어촌지역의 경우는 교내 공식 동아리(28.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이버 동아리(7.1%), 교외 공식 동아리(4.6%), 비공식 소규모 동아리(3.8%)

Table 9. Volunteer activity type comparison by region

Activities	Urban	Rural
	N (%)	N (%)
Helping people	668 (24.5)	105 (26.6)
Sympathy visit	199 (7.3)	26 (6.6)
Counseling	78 (2.9)	11 (2.8)
Campaigning	167 (6.1)	40 (10.2)
Charitable work	86 (3.2)	21 (5.3)
Environment Protection	106 (3.9)	14 (3.6)
Community development	120 (4.4)	32 (8.1)

* Only those who participate in activities are shown.

Table 10. Club type comparison by region

Club type	Urban	Rural
	N (%)	N (%)
Formal in-school club	1,033 (37.9)	111 (28.2)
Formal out-of-school club	92 (3.4)	15 (3.8)
Informal small size club	233 (8.5)	18 (4.6)
Cyber club	229 (8.4)	28 (7.1)

* Only those who participate in activities are shown.

순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의 경우 전반적으로 도시보다 공식 동아리활동을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앞으로 학교를 통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 및 또래요인, 지역사회요인을 모델에 포함시킨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개인요인과 가족요인이 유의하였고, 일부 학교 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 요인은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다. 개인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여가활동만족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으로는 부모애착, 경제 만족도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경제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 및 또래

요인에서는 급우관계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급우관계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반면, 학교 및 또래요인에서 공부압력, 교사관계와 지역사회요인 모두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통제 변수인 성별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자 아동청소년에 비해 여자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역을 도시와 농산어촌으로 나누어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도시지역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요인이 전체 모델이 똑같았다. 개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여가만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에서는 경제 만족도와 부모애착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경제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삶의

Table 11. Multiple regression of life satisfaction

Factors	Variables	Total		
		B	Std. Error	Beta
Constant		1.277	.168	
Control V	Sex (Male=0)	-.100	.024	-.063***
Individual factor	Self-esteem	.047	.004	.217***
	Stress	-.011	.001	-.142***
	Satisfaction with leisure	.208	.015	.222***
Family factor	Satisfaction with home economy	.074	.012	.096***
	Parent attachment	.032	.003	.185***
School & peer factor	Pressure with study	-.004	.007	-.010
	Relation with teachers	.004	.017	.004
	Relation with classmates	.056	.020	.053**
Community factor	Community attachment	.006	.008	.015
	Community protection	-.001	.007	-.003
	Region (Urban=0)	-.039	.036	-.016
	F		124.596***	
	N		3031	
	R ²		.331	

***p<.001, **p<.01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및 또래요인에서는 급우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우관계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및 또래요인 중 공부압력과 교사관계와 모든 지역사회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전체 모델과 마찬가지로 성별도 유의하여 도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도시 여학생의 낮은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농산어촌의 경우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중 일부만 유의하였다. 개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여가만족도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에서는 부모애착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요인 중 경제 만족도, 학교 및 또래요인, 지역사회요인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울러 성별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Table 12).

삶의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자존감, 스트레스, 여가만족, 경제만족도, 부모애착, 급우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여가만족도, 부모애착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시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구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삶의 만족도, 즉 복지증진을 위한 개입방식도 차별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또한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생활방식 상(예: 스트레스, 여가만족도) 지원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12. Multiple regression of life satisfaction by region

Factors	Variables	Urban			Rural		
		B	Std. Error	Beta	B	Std. Error	Beta
Constant		1.256	.169		1.085	.454	
Control V	Sex (Male=0)	-.108	.026	-.069***	-.021	.074	-.013
Individual factor	Self-esteem	.049	.004	.228***	.030	.011	.139**
	Stress	-.011	.002	-.148***	-.009	.004	-.126*
	Satisfaction with leisure	.195	.016	.210***	.303	.047	.301***
Family factor	Satisfaction with home economy	.074	.013	.096***	.072	.037	.093
	Parent attachment	.032	.003	.186***	.035	.009	.185***
School & peer factor	Pressure from study	-.003	.007	-.007	-.012	.023	-.028
	Relation with teachers	.004	.019	.004	-.005	.051	-.005
	Relation with classmates	.056	.021	.052**	.077	.054	.080
Community factor	Community attachment	.010	.008	.023	-.015	.024	-.034
	Community protection	-.003	.008	-.008	.004	.022	.009
	F		122.620			13.595	
	N		2661			369	
	R ²		.337			.295	

***p<.001, **p<.01, *p<.05

고 찰

농산어촌의 복지 및 문화 수준은 인구의 유출, 낮은 산업화, 지역경제의 낙후 등과 같은 서로 맞물리는 일련의 요인으로 인하여 열악한 상황이다. '60~70년대 이후 가속화된 산업화는 도농간의 격차를 심화시켰고, 농산어촌에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아동청소년의 수가 급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에 남아있는 아동청소년은 패배의식을 갖게 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학력제 일주의 풍토에서 교육적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빈곤의 탈출이 교육으로 가능함에도 농산어촌의 낮은 교육의 질과 시설 등은 빈곤의 세습화를 낳고 있다.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을 위한 근본적인

빈곤정책의 부재는 이들에 대한 낮은 복지수준을 초래한다. 아울러 빈곤한 방과후 활동 및 여가활동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였고, 학계에서는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매우 적었다[5,12]. 또한 농산어촌지역 젊은 인력의 부족은 미래 식량 안보의 위협, 안전한 식품공급체계의 파괴, 자연환경의 파괴 등 그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청장년층의 이농 주요인인 일자리와 자녀 교육문제가기 때문에 농산어촌에 적절한 복지 및 교육환경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이 제기되고 있다[7].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고에서는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여가 실태를 파악하여 도농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생산하고 있는 청소년패널 제4차년도(2007년) 자료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복지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 및 또래요인, 지역사회요인으로 나누어서 도농간 평균을 비교하였고, 문화와 관련해서는 여가활동실태를 비교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요인이 삶의 질에 주는 영향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복지수준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을 제외하고 항목별 도농간 차이는 모두 유의하였다. 즉, 도시에 사는 아동청소년은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여가 만족도도 높았고, 아울러 부모에 대한 애착, 교사와의 관계, 급우와의 관계는 도시의 경우가 더 좋았다. 단, 개인적 스트레스와 학업에 대한 압력은 도시가 농산어촌에 비해서 높았고, 지역사회 요인인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감독은 도시에 비해서 농촌이 높았다. 이 밖에 모든 변수들은 도시가 더 높았다. 도시가 더 부정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이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이므로, 결국 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농촌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는 결과[13]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에서 볼 때,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나 연계를 제외하고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의 상황은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은 도농이 유사하게 수동적인 활동을 주로 하고 있었다. 도시의 경우는 혼자서 여가를 보내는 비율이 높았고, 주로 집에서 여가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농산어촌의 경우는 학교가 중요한 여가활동의 장소로 기능하고 있었고, 도시에 비해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은 여가를 위해 사회의 자원(집근처나 시내 등)을 활용하는 비율이 낮았다. 이는 지역의 인프라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여가생활에서는 불만족은 지역을 막론하고 프로그램의 부족과 시설의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여 이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의 경우가 인프라 측면에서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구나 농산어촌은 지형학적으로 시설에의 접근도가 낮아 불만족하다는 비율이 매우 높아, 여가시설에의 확충과 함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각종 요인이 삶의 질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고, 학교 및 또래 요인에서는 급우와의 관계만이 중요한 변수로 판명되었다. 즉,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은 높은 자존감, 낮은 스트레스, 여가 만족, 가족경제 만족, 부모 애착, 급우와의 관계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가만족인 점을 감안하여 여가만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 수준에 가장 커다란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여가 여건을 개선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이 주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본 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농산어촌의 여가를 위한 시설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부족한 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축되는 청소년 수련 시설 및 복지시설은 군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한다.

둘째,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이규천 최경환[7]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농촌과 도시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의 정책적 접근이 구별되어야 한다. 즉, 농산어촌의 경우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방안 필요하고, 도시의 경우는 실내 활동 보다 실외에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여, 수동적인 여가생활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도시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가족 및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 기회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사회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자존감 제고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판명된 점을 염두에 두어 아동청소년의 자존감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농산어촌의 학교시설을 방과후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군지역의 경우는 다른 복지시설의 유치가 어려운 반면, 학교는 어느 곳이나 위치에 있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복지 및 여가 시설화 하도록 한다.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신규 시설을 건축하는 것보다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산어촌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 도농 학교간 결연을 통한 상호 왕래 및 이해를 도모하여 각자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강점은 나눌 때,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풍부한 물적 자원과 농산어촌의 자연환경자원이 결합될 때, 양자가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방법과 내용상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연구의 대상으로 고2만을 하여 대상의 비포괄성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한계 상 모든 아동청소년 연령을 포괄하는 자료가 없다. 최근 실시한 아동청소년 종합실태 조사가 공개될 때 대상의 한계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양적자료에 의존하였는데, 향후에는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층사례 연구를 통해서 복지와 문화에 대한 세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문화 문제가 사회경제적인 저발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을 위해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요 약

목적: 본 연구는 도시의 아동청소년의 복지 및 여가 수준을 농산어촌 아동청소년과 비교하고, 아울러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4차 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표본수는 총 3,145이었고, 평균 연령은 17세(고2)이었다. T-test와 다중회귀분석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결과: 거의 모든 복지관련 변수에서, 삶의 만족도, 여가만족도, 부모애착, 교사 및 학우관계,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은 도시 아동청소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비록 도시 아동청소년이 농산어촌보다 높은 스트레스와 학업부담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복지수준은 농산어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스트레스는 곧 도시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이 도시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유일한 변수는 지역요인에 있었다.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인 여가수준에 있어서도,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은 불리한 상황에 있다. 농산어촌에는 여가시설에의 접근도가 낮고, 여가시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론: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여가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산어촌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제안하였다. 한편 도시 아동청소년에게 부족한 자연체험활동을 위해서 농산어촌 학교와 도시학교와의 자매결연을 맺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복지, 여가, 농산어촌, 삶의 만족도, 여가만족도

참고문헌

1. 서문희, 이미화, 김은설, 이세원.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농림부,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2.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종합분석보고서, 2008.
3. Oh SH, Yoon DS. A comparative study on quality of life on the elderly among urban, farm and island area.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006;32:119-147(Korean).

4. Lee JH, Han GH. The effects of work and leisure activiti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Rural Society* 2003;13(1): 209-238(Korean).
5. 김경준, 최인재, 조홍식, 이용교, 이상균, 정익중, 최금해.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6.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07.
7. 이규천, 최경환. 농촌지역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8. Kwon, IN. A study on the welfare levels and directions for rural youth. *rural society* 2001; 11(2):243-273.
9. 김태완, 이태진, 신현웅, 윤상용, 최현수, 김동진, 김문길, 양시현, 윤강재, 윤시몬, 김상욱, 우선희, 전지현.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10. Menanteau-Horta D, Yigzaw M. Indicators of social well-being and elements of child welfare in minnesota rural counties. *child welfare* 2002;81(5):709-735.
11. Guo M, Wu X. School expansion and educational stratification in china 1981-2006.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Paper*, 2008.
12. 최민호. 농촌청소년지도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13. 김성수, 김경준, 전경숙. 21세기 농촌청소년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0.